

12. 텐션(Tension)

노트의 안정과 불안

노트의 불안과 안정을 따질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주로 스케일이나 코드가 된다.

A. 스케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안정] 스케일의 구성음 VS [불안] 스케일의 구성음이 아닌 음

C 메이저 스케일의 구성음	C 메이저 스케일의 구성음이 아닌 음
안정	불안
C, D, E, F, G, A, B 노트	C#, D#, F#, G#, A#

B. 코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안정] 코드의 구성음 VS [불안] 코드의 구성음이 아닌 음

FM7의 코드톤	FM7의 논코드톤
안정	불안
F, A, C, E 노트	C#, D, D#, F#, G, G#, A#, B

* 안정과 불안을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이 계산하기는 쉽지만 활용에는 제약이 생길 수 있다.

* 안정과 불안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정과 불안을 상대적인 개념이나 수치로 표현해보는 것이 좋다. *e.g.) FM7 코드에서 F# 노트가 G 노트보다 불안하다.*

텐션 노트

코드를 기준으로 불안한 노트인 논코드톤 중에서 다른 것들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노트들이 있는데 이러한 노트들을 텐션 노트라 한다.

텐션은 코드톤보다는 불안하고, 텐션이 아닌 논코드톤(어보이드 노트)보다는 안정적이다.

텐션 노트의 이름은 코드의 루트(1 음)로부터 텐션노트까지의 음정을 겹침정으로 표현한다.

e.g. C 코드에서 D 노트는 C 노트와 장 2 도 간격이므로 T9(텐션 나인)이 된다.

FM7의 코드톤	FM7의 논코드톤	
안정	약간 안정(약간 불안)	많이 불안
F, A, C, E 노트	D, G, B	C#, D#, F#, G#, A#
코드톤	텐션	어보이드 노트(커션 노트)

* 논코드톤을 덜 불안한 것과 많이 불안한 것으로 나뉘어서 노트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텐션 노트를 사용하는 이유

안정과 불안을 2 단계가 아닌 3 단계로 세분화시켜서 노트를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텐션 노트를 사용하면 긴장감이 생기고, 기존의 코드톤만 사용했을 때와 다른 소리를 낼 수 있다.

멜로디를 만들 때나 코드를 사용할 때 노트를 더 쉽게 고를 수 있다.

세련되고 재지(Jazzy)한 느낌을 낼 수 있다.

리프(Riff)나 패턴을 만들기 쉬워진다.

텐션 노트를 쉽게 찾는 방법 01 - 코드톤과 논코드톤의 음정을 이용해서 계산

(도미넌트 기능을 하는 코드의 텐션은 나중에 추가로 다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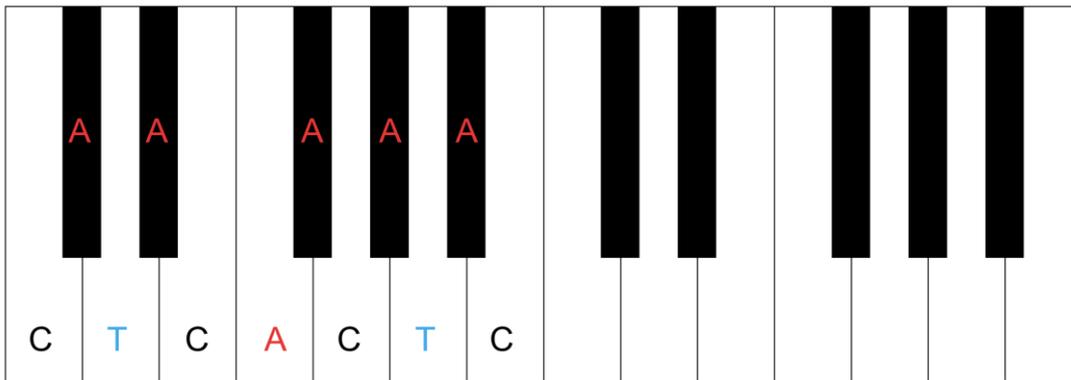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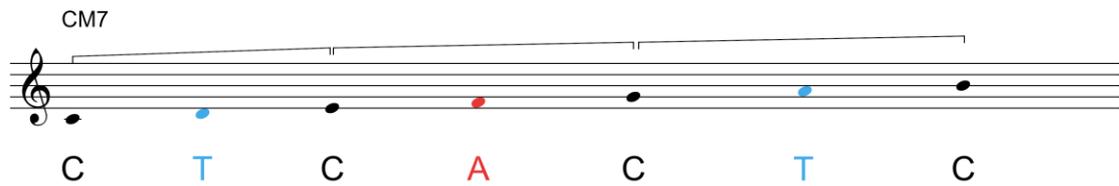
논다이아토닉 노트는 전부 텐션이 아니다.

다이아토닉 노트 7 개 중 코드톤 4 개를 제외한 나머지 3 개만 텐션인지 아닌지 따져보면 된다.

텐션인지 아닌지 따져야 하는 노트가 바로 아래 코드톤보다 **온음(M2, M9) 위에 있으면 텐션 노트**, **반음(m2, m9) 위에 있으면 어보이드 노트**가 된다.

C Key IM7 인 CM7 코드에서						
다이아토닉 노트 : C, D, E, F, G, A, B						
논다이아토닉 노트 : C#, D#, F#, G#, A# [모두 어보이드 노트]						
다이아토닉 노트 중 D, F, A 가 텐션인지 어보이드 노트인지 따져봐야 함						
C 노트	D 노트	E 노트	F 노트	G 노트	A 노트	B 노트
1 음	C 노트보다 온음 위	3 음	E 노트보다 반음 위	5 음	G 노트보다 온음 위	7 음
코드톤	텐션(T9)	코드톤	어보이드 노트	코드톤	텐션(T13)	코드톤

C:코드톤 T:텐션노트 A:어보이드노트



C Key IIm7 인 Dm7 코드에서						
다이아토닉 노트 : C, D, E, F, G, A, B						
논다이아토닉 노트 : C#, D#, F#, G#, A# [모두 어보이드 노트]						
다이아토닉 노트 중 E, G, B 가 텐션인지 어보이드 노트인지 따져봐야 함						
D 노트	E 노트	F 노트	G 노트	A 노트	B 노트	C 노트
1 음	D 노트보다 온음 위	3 음	F 노트보다 온음 위	5 음	A 노트보다 온음 위	7 음
코드톤	텐션(T9)	코드톤	텐션(T11)	코드톤	텐션(T13)	코드톤

C Key III m7 인 Em7 코드에서						
다이아토닉 노트 : C, D, E, F, G, A, B 논다이아토닉 노트 : C#, D#, F#, G#, A# [모두 어보이드 노트] 다이아토닉 노트 중 F, A, C가 텐션인지 어보이드 노트인지 따져봐야 함						
E 노트	F 노트	G 노트	A 노트	B 노트	C 노트	D 노트
1 음	E 노트보다 반음 위	3 음	G 노트보다 온음 위	5 음	B 노트보다 반음 위	7 음
코드톤	어보이드 노트	코드톤	텐션(T11)	코드톤	어보이드 노트	코드톤

C Key IV M7 인 FM7 코드에서						
다이아토닉 노트 : C, D, E, F, G, A, B 논다이아토닉 노트 : C#, D#, F#, G#, A# [모두 어보이드 노트] 다이아토닉 노트 중 G, B, D가 텐션인지 어보이드 노트인지 따져봐야 함						
F 노트	G 노트	A 노트	B 노트	C 노트	D 노트	E 노트
1 음	F 노트보다 온음 위	3 음	A 노트보다 온음 위	5 음	C 노트보다 온음 위	7 음
코드톤	텐션(T9)	코드톤	텐션(T#11)	코드톤	텐션(T13)	코드톤

C Key V7 인 G7 코드에서 (도미넌트 기능 코드의 텐션은 나중에 추가로 배움)						
다이아토닉 노트 : C, D, E, F, G, A, B 논다이아토닉 노트 : C#, D#, F#, G#, A# [모두 어보이드 노트] 다이아토닉 노트 중 A, C, E가 텐션인지 어보이드 노트인지 따져봐야 함						
G 노트	A 노트	B 노트	C 노트	D 노트	E 노트	F 노트
1 음	G 노트보다 온음 위	3 음	B 노트보다 반음 위	5 음	D 노트보다 온음 위	7 음
코드톤	텐션(T9)	코드톤	어보이드 노트	코드톤	텐션(T13)	코드톤

C Key VI m7 인 Am7 코드에서						
다이아토닉 노트 : C, D, E, F, G, A, B 논다이아토닉 노트 : C#, D#, F#, G#, A# [모두 어보이드 노트] 다이아토닉 노트 중 B, D, F가 텐션인지 어보이드 노트인지 따져봐야 함						
A 노트	B 노트	C 노트	D 노트	E 노트	F 노트	G 노트
1 음	A 노트보다 온음 위	3 음	C 노트보다 온음 위	5 음	E 노트보다 반음 위	7 음
코드톤	텐션(T9)	코드톤	텐션(T11)	코드톤	어보이드 노트	코드톤

C Key VII $m7^{b5}$ 인 B $m7^{b5}$ 코드에서						
다이아토닉 노트 : C, D, E, F, G, A, B						
논다이아토닉 노트 : C \sharp , D \sharp , F \sharp , G \sharp , A \sharp [모두 어보이드 노트]						
다이아토닉 노트 중 C, E, G 가 텐션인지 어보이드 노트인지 따져봐야 함						
B 노트	C 노트	D 노트	E 노트	F 노트	G 노트	A 노트
1 음	B 노트보다 반음 위	3 음	D 노트보다 온음 위	5 음	F 노트보다 온음 위	7 음
코드톤	어보이드 노트	코드톤	텐션(T11)	코드톤	텐션(T b 13)	코드톤

텐션 노트를 쉽게 찾는 방법 02 - 다이아토닉 코드의 텐션 노트 형식(Form)을 암기

G Key 의 IVM7 인 CM7 의 텐션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G Key IVM7 인 CM7 코드에서						
다이아토닉 노트 : G, A, B, C, D, E, F \sharp						
논다이아토닉 노트 : C \sharp , D \sharp , F, G \sharp , A \sharp [모두 어보이드 노트]						
다이아토닉 노트 중 D, F \sharp , A 가 텐션인지 어보이드 노트인지 따져봐야 함						
C 노트	D 노트	E 노트	F \sharp 노트	G 노트	A 노트	B 노트
1 음	C 노트보다 온음 위	3 음	E 노트보다 온음 위	5 음	G 노트보다 온음 위	7 음
코드톤	텐션(T9)	코드톤	텐션(T \sharp 11)	코드톤	텐션(T13)	코드톤

G Key 의 IVM7 인 CM7 의 텐션이 나오는 형식은 C Key 의 IVM7 인 FM7 과 같다.
다이아토닉 코드의 형태(Form)를 외웠을 때처럼 텐션의 형식을 암기할 수 있다.

다이아토닉 코드의 텐션 Form (*암기할 것)						
IM7	II $m7$	III $m7$	IVM7	V7	VI $m7$	VII $m7^{b5}$
T9	T9		T9	T9	T9	
	T11	T11	T \sharp 11		T11	T11
T13	T13		T13	T13		T b 13

위의 표를 암기하고 나면 나머지는 음정계산만 하면 된다. 겹음정으로 표시된 텐션들은 숫자 7 을 빼면 홀음정으로 계산할 수 있다.

$T9 : M9 - 7 = M2$ (장 2도)

$T11 : P11 - 7 = P4$ (완전 4도)

$T\sharp 11 : A11 - 7 = A4$ (증 4도)

$T13 : M13 - 7 = M6$ (장 6도)

$T^b 13 : m13 - 7 = m6$ (단 6도)

다이아토닉 코드의 텐션 노트 정리

다이아토닉 코드의 텐션을 Key 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C Key 에서 다이아토닉 코드의 텐션						
CM7	Dm7	Em7	FM7	G7	Am7	Bm7 ^{b5}
T9 (D)	T9 (E)	T11 (A)	T9 (G)	T9 (A)	T9 (B)	T11 (E)
T13 (A)	T11 (G)		T [#] 11 (B)		T11 (D)	
	T13 (B)		T13 (D)	T13 (E)		T ^b 13 (G)

F Key 에서 다이아토닉 코드의 텐션						
FM7	Gm7	Am7	B ^b M7	C7	Dm7	Em7 ^{b5}
T9 (G)	T9 (A)	T11 (D)	T9 (C)	T9 (D)	T9 (E)	T11 (A)
	T11 (C)		T [#] 11 (E)		T11 (G)	
T13 (D)	T13 (E)		T13 (G)	T13 (A)		T ^b 13 (C)

B ^b Key 에서 다이아토닉 코드의 텐션						
B ^b M7	Cm7	Dm7	E ^b M7	F7	Gm7	Am7 ^{b5}
T9 (C)	T9 (D)	T11 (G)	T9 (F)	T9 (G)	T9 (A)	T11 (D)
	T11 (F)		T [#] 11 (A)		T11 (C)	
T13 (G)	T13 (A)		T13 (C)	T13 (D)		T ^b 13 (F)

※ 나머지 E^bKey 에서 G Key 까지의 텐션 노트는 생략

일반적인 코드의 텐션 노트 형식(Form)을 암기

다이아토닉 코드별로 외우지 않고 코드 형태별로 간략하게 외우는 방법도 있다. 논다이아토닉 코드의 텐션을 찾을 때는 이 방법이 더 편할 수도 있다.

Major 코드의 텐션	9, [#] 11, 13
Minor 코드의 텐션	9, 11, 13
m7 ^{b5} 코드의 텐션	11, ^b 13
도미넌트 코드의 텐션(나중에 배움)	^b 9, 9, [#] 9, [#] 11, ^b 13, 13

텐션 표기 방법

텐션의 표기는 완전히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악보에 제대로 표기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텐션이나 코드를 제대로 표기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07.코드 III - 코드 표기 규칙.pdf 파일을 참조한다.

텐션을 사용하는 방법(기초)

1. 코드마다 텐션 노트가 다르며, 텐션 중의 일부를 선택해서 사용한다.
2. 텐션 노트는 논코드톤이므로 코드로 연주할 때 코드톤에 더해서 사용한다.
3. 텐션은 안정적인 노트로 사용할 수 있다. (해결없이 코드톤처럼 길게 사용할 수 있다.)
4. 텐션은 불안한 노트로 사용할 수 있다. (텐션이 가진 불안함을 코드톤으로 해결할 수 있다.)
5. 멜로디는 12 개의 노트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불안한 노트를 안정적인 노트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텐션은 멜로디에서도 안정이 될 수도 있고 불안이 될 수도 있다.

텐션을 사용하는 방법(고급)

1. 코드톤이 없거나 코드톤의 사운드가 너무 약하거나 텐션 노트가 너무 많으면 주객전도가 되어 버리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코드의 기능이 붕괴되는 경우에는 텐션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e.g. Ilm7 에서 T13 을 사용할 경우 3 음과 T13 사이에 트라이톤이 생긴다.
이 때, 원래 코드의 기능인 S(서브도미넌트)가 D(도미넌트)로 바뀌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듣기 안좋으니까 사용하면 안된다는 개념이 아님.
3. 텐션 노트를 계산하는 것은 사용할 수 있다/없다의 개념이 아니라 노트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불안한지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하면 안되는 노트는 없으며 불안한 노트는 가끔씩 짧게 사용하고 안정적인 노트로 이동하면 해결이 된다. 텐션을 사용했을 때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면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
4. 각 텐션마다 안정과 불안의 정도가 다르다. T9 은 배음에서 앞쪽에 등장하기 때문에 다른 텐션보다 덜 불안하고 더 안정적이다. (대중음악에서 T9 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유)
5. 배음에서 상당히 뒤쪽에 등장하는 M7 는 화성학에서 편의상 코드톤으로 구분하지만 텐션과 비슷하게 꽤 불안한 노트라는 걸 인식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1 음, 3 음, 5 음까지만 코드톤으로 인식하는 방식도 나쁘지 않다.
6. 불안한 텐션을 사용할 때는 텐션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앞에 등장한 노트의 유지, 어프로치 노트로 사용 등)
따라서, 텐션을 잘 사용하려면 멜로디와 반주에서의 노트의 움직임도 잘 따져봐야 한다.
7. 노트의 불안과 안정을 따지는 방법이 코드톤/논코드톤(텐션, 어보이드)만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블루노트가 사용된 음악이나 논다이아토닉 코드의 코드톤 및 텐션은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HOMEWORK

- 텐션이 무엇인지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리하기
- 12 Key 다이아토닉 코드들의 텐션 노트 정리하기(바로 찾을 수 있도록)
- 텐션 노트를 이용해서 멜로디 만들기
- 코드진행을 만들고 코드 반주에 텐션 노트를 추가해 보기

기타 안내사항

- 오프라인 개인 레슨 안내문 : <http://bonik.me/523>
- 질문, 아이디어, 콜라보레이션, 사연, 협찬 등 : 이메일(mail@bonik.me)
- 유튜브 구독, 추천 버튼을 눌러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